

세계는 지금...

국제 사진 뉴스

출처: 신화넷

미국과 러시아, 토이거서 량자회담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2월 27일 토이거 이스탐불에서 량자 관계에 관한 1차 회담을 마쳤다. 미국 언론은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량측은 회담에서 인력 배치, 비자 등과 관련한 대사관 운영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새 정부 희토류자원에 눈독

2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은 희토류자원 면에서 우크라이나와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은 '희토류를 매우 수요'하고 우크라이나는 '대량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월 27일, 러시아대표단이 차를 타고 이스탐불 주재 미국경사관저를 떠나고 있다.

WHO: 원숭이두창 여전히 '국제 주목 돌발 공중보건사건' 구성



2월 27일,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돌발 공중보건사건'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2월 26일, 의료일군이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키오주성 수부 부카무시의 한 원숭이두창치료중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방글라데슈 국민 국제모국어의 날 기념

2월 21일은 국제모국어의 날이다. 이날 방글라데슈 국민들은 1952년에 방글라데슈어를 국어로 사용하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1999년, 유네스코는 매년 2월 21일을 '국제모국어의 날'로 지정했다.



대에급박물관 7월 3일 개관

2월 25일 오후, 애급은 대에급 박물관이 올해 7월 3일부터 공식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에급박물관은 유명한 기자(吉萨) 피라미드관광지 부근에 위치해있으며 개방되면 세계 최대의 고고학(考古学) 박물관으로 된다.



애급 겨울날의 플라밍고

해마다 겨울이면 많은 플라밍고(火烈鸟)들이 애급 엘파이움성의 가릉호에 날아들어 먹이를 찾으며 겨울을 난다.

▶ 2월 22일 가릉호에서 찍은 플라밍고



일본 시라가와향 '합장조' 전통 촌락

사진은 2월 26일에 찍은 일본 혼슈섬(本州島) 중부의 기후현(岐阜县) 시라가와향(白川乡) '합장조'(合掌造) 마을 정경이다. 춥고 눈이 많은 환경은 시라가와향 '합장조' 가옥의 독특한 지붕 설계를 만들어냈다. 이 가옥은 지붕에 못을 박을 필요 없이 목재와 벽짚으로 지어졌으며 쌓인 눈이 흘러내리기 쉽게 60도에 가까운 가파른 인자형을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린근 공항 하루 폐쇄

2월 26일,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연구기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누사뎡가라성 레버토비 화산이 분출되면서 화산재 기둥이 2,500미터까지 치솟았다. 이에 마오메레 프란세다 공항 관리부문은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항을 하루 폐쇄했다.